

# 시진핑 보아오포럼 對美 메시지 촉각

## 발언내용·수위 따라 무역전쟁 변곡점 될 듯 트럼프 “中 무역장벽 허물 것” 낙관론 피력

미중 무역갈등의 고조 속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10일 보아오포럼 개막연설에서 밝힐 대 미국 메시지에 촉각이 쏠린다.

시 주석의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미국의 선제 공격, 중국의 보복 반격, 협상 기류 형성, 미국의 재반격 등으로 대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국 무역전쟁의 또다른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5년에 이어 보아오포럼에 3년만에 참석하는 시 주석은 현재 최대 쟁점이 된 미국과의 통상갈등 문제에 맞춰 미국 우

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를 성토하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혁신의 아시아, 번영·발전의 세계’라는 올해 보아오포럼 주제에 맞춰 미국의 보호주의 압박 속에 전 세계적으로 지지세력을 규합해 자유무역 전도사로 나서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40년만에 양국의 교역액이 230배나 늘어나 양국이 서로 최대 무역 대상국이 된 점을 내세워 미중

교역의 확대가 서로에게 윈윈이 됐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개혁 심화와 대외 개방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시장진입 기준 완화 압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의 연설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이 무역장벽을 허물 것”이라고 낙관론을 피력하며 “무역 분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시 주석과는 항상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대중 압박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로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시 주석 역시 보아오포럼에서 밝힐 메시지의 일단을 보여줬다.

그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중국은 물론 세계 평화의 건설자이자 세계 발전의 공헌자이며, 국제 질서의 수호자였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세계와 중국의 발전 기회와 경험을 공유하길 바라지만 절대 중국의 노선과 모델, 이론을 다른 국가에 억지로 주입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거 시 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밝혔던 방침과는 약간 대치된다. 시 주석은 2013년, 2015년 보아오포럼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 개방을 재확인하면서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과 선린 외교 방침을 밝혔다.

## 태국 전통의상 입기 유행 TV 연속극 인기 등 여파

태국에서 최근 전통의상을 입는 게 유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 현지 언론이 9일 전했다.

1600년대 나라이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TV 연속극 ‘러브 데스터니’가 인기몰이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연속극이 방영된 후 촬영지인 태국의 옛 수도 아유타야에서 전통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게 붐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이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

방콕에서 전통 옷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은 “이렇게 손님이 많은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태국의 국영 항공사인 타이항공 승무원들이 전통의상을 입기 시작했고, 전통의상을 입은 영화 관람객에게 티켓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공짜로 주는 ‘원플러스원’(One plus One) 판촉 행사도 생겼다.

그러나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와 왕실이 전통의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다.

절대 군주제 시절을 미화하면서 “옛날이 더 좋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부 최고지도자인 브라웃 잔-오차 총리는 지난주 ‘러브 데스터니’ 배우들을 만나 “이 연속극이 ‘태국다움’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오랜 정책의 예”라고 말했다.



헝가리 총선에서 여당 피데스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사진은 이날 밤 부다페스트에서 승리를 확정된 피데스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 /연합뉴스

## 헝가리 여당 총선 압승... 오르반 총리 4선

69.3% 투표율 개헌가능 의식 확보... 동유럽 우파 확산 EU 분열 우려

헝가리 총선에서 ‘난민 공포’ 전략을 펼쳤던 여당 피데스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8일(현지시간) 헝가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당 피데스와 기독교국민당(KDNP) 연합은 개표가 98.5% 진행된 가운데 48.5%의 득표율을 기록해 전체 의석 199석 가운데 개헌 가능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133석 혹은 그보다 한 석 많은 13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피데스와 KDNP의 득표율은 133석을 차지했던 2014년 총선 때의 44.8%를 넘어섰다.

이날 투표율은 69.3%를 기록했다. 현행 방식의 총선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2010년 투표율 61.7%와 비교하면 7.6%포인트 높다.

이날 총선 결과로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3연임을 하는 4선 총리가 되면서 2022년까지 헝가리를 이끌게 됐다.

유럽 내에서 EU 난민 정책을 비판하는 데 동조했던 폴란드와 체코, 슬로바키아 등을 중심으로 우파 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EU 내에서 동서 분열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권자들이 개헌 의석까지 여당에 안겨 주면서 ‘빅데이터(빅토르와 독재자를 뜻하는 빅데이터의 합성어)’라는 별명을 가진 오르반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더 탄탄해졌다.

## 세상에 이런일이...

### 핀란드서 '30대 성전환 남성' 출산

핀란드에서 '30대 남성'이 최근 아이를 낳았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8일 현지 언론인 '탄넨 미디어'에 따르면 올해 30세인 '남성 성전환자(trans man)'가 2-3주 전에 체중 4kg, 신장 53cm의 아이를 낳았다.

이 '트랜스 맨'은 10년 전에 남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자신의 파트너가 아이를 갖기를 위해 호르몬 치료를 잠시 중단했고 임신에 성공했

다.

지난 2008년 미국의 토머스 비티가 세계 최초로 출산한 남성으로 등록된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서 남성이 출산한 사례가 있으나 핀란드에서 남성이 출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 남성은 임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막상 임신에 성공한 뒤에 합병증은 없었다고 전했다.

## “우린 가지고 노는 장난감 아니다”

### 인도 여배우 반나체로 '미투' 운동 전개

성차별이 심한 인도에서 한 영화배우가 반나체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에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스리 레디라는 할리우드 배우가 '토플리스'(topless-상의탈의)로 미투한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디는 지난 7일 인도 중남부 하이데라바드에서 현지 영화위원회 사무실 인근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레디는 사무실로 걸어다가 카메라 앞에서 상의를 모두 벗었다.

그러면서 손으로 가슴을 가린 채 “우리가 여성인가 아니면 갖고 놀 장난감인가”라고 외쳤다.

곧이어 레디는 경찰에 의해 끌려갔다. 공공장소에서 심하게 노출한 혐의였다.

관련 영상과 사진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퍼졌다. 그간 성적으로 억압받던 인도 여성 등은 레디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지해나섰다.



인도 배우 스리 레디

할리우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하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심한 성차별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인 레디도 부당한 성적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영화 제작자가 레디에게 배역에 캐스팅되기 전에 누드 영상을 보내라고 한 것. 이에 레디는 요청에 따랐지만 관련 영상은 돌려받지 못했다.

레디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시위 후 어떤 배역 제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 사회학자 디파 나라얀은 “레디와 함께할 여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중 부동산 투기용 '가짜 이혼·결혼' 판쳐

중국 푸저우 시에 사는 주부 수마 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게 적용받기 위해 3년 전에 '가짜 이혼'을 했다.

당시 천정부지로 뛰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푸저우 시는 기존 보유 주택에 더해 추가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 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혼하게 되면 수 씨는 법적으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돼 저렴한 대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가짜 결혼이나 이혼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수단 또한 마땅치 않아 당국이 속을 썩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이러한 관행이 너무 만연해 2016년 여름 상하이 시당국은 이혼 서류 제출에 대해 하루 제한 건수를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가짜 이혼뿐 아니라 '가짜 결혼'도 종종 눈에 띈다.

재활용으로 지구를 살려요

자원순환